

보도시점 2024. 3. 25.(월) 13:30
< 3.26.(화) 조간 >

배포 2024. 3. 25.(월)

수출 7천억 불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255조 원 공급

- 산업별 무역보험 공급 목표 첫 제시...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136조 원, 방산·원전·플랜트 26조 원, 농수산물식품 등 유망소비재 18조 원 등
-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여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 90조 원 투입
- 동남아·인도시장 선점을 위한 소형 e-모빌리티 수출확대 전략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5일(월), 대한상의에서 「제4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①'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②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③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안건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7천억불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월 마련한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서 그간 수출기업에 애로가 있었던 금융·인증·마케팅 분야에 대한 세부 전략이다.

▶ (안건1) '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우선,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①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하고, ②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③최근 한류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물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④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①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확대('23년 2.8만개사 → '24년 3.5만개사)하고, ②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2배) 운영과 단기수출 보험료 할인(50%)을 지속한다.

아울러, ③시중은행-무보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2조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하고, ④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2천억원 → 4천억원)하고,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해 RG 부보율 상향(85% → 90% 이상)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①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지원(1조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②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수출 공급망 보증, 0.2조원)을 신규 도입한다,

한편, 신흥시장 진출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①글로벌사우스 등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확대(10조원)하고, ②작년말 FTA가 타결된 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 (안전2)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는 ‘30년 1,200억불 이상(’22년 782억불)으로 급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이다. 특히, e-모빌리티 비율이 낮고(5% 수준) 중국 등 주요국과 경쟁이 치열한 인도, 동남아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우선, ①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 ②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인니, ’24년) 및 시범보급 추진, ③BBQ·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④아세안 e-모빌리티 전시회(5월 자카르타)를 통해 현지바이어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위한 해외상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⑤안정적인 계약이행과 대금회수를 위한 제작자금 대출보증 및 수출보험을 우대(한도 1.5배, 보험·보증료 30% 할인)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⑤전남,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 ⑥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 구축(~’25년, 국비 253억원), ⑦안전기준·국가표준 마련 및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자동차에 포함(’24.下) 하는 등 시장 창출 관점에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3)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

무역기술장벽은 작년 사상 최초로 4천건을 넘어섰으며 최근 매일 10개 이상이 신설되는 추세이다. 복잡 다양화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①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 확대(20개국 → 캐나다, 이집트 등 25개국), ②미통보 숨은 규제 정보제공 확대(2천건 이상), ③「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④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 지원하는 기업간담회(반기별 1회)와 지역 순회 설명회(월 1회)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올해 1~2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소비·투자·수출) 중 확실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수출 엔진을 풀가동하여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참 고】 1.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요
2.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 【별 첨】 1. ‘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2.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담당 부서 <총괄>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상용 (044-203-4020)
		담당자	서기관	최혁기 (044-203-4021)
			사무관	권승기 (044-203-4023)
			사무관	서두원 (044-203-4024)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담당자	서기관	김 효 (044-203-4041)
	제조산업정책관 미래모빌리티팀	책임자	팀 장	이은희 (044-203-4390)
		담당자	사무관	박충희 (044-203-4396)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민영 (043-870-5520)
		담당자	연구관	배종수 (043-870-5523)

참고1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요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 3. 25 (월), 13:30 ~ 15:00 / 대 한 상 의
- (참석자) 산업부 장관 (주재)
 - (민간기업) 삼성전자 박용인 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 LS전선 구본규 대표이사, 두산에너지 김중두 부사장, 디앤에이모터스 이상윤 대표이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최용호 대표이사,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
 - (민간협회) 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 (지원기관) 무역보험공사 장영진 사장, TBT종합지원센터 오기수 센터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 (관계부처)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중기부, 외교부 등

2 주요 의제

- '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산업부)
-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부)
-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국표원)

3 세부 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30~13:38 (08')	04'	모두발언		산업부 장관
	04'			무역협회장
13:38~14:15 (37')	23'	범부처 수출확대전략		
	(07')	발제	'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산업부 무역정책관
	(06')		정책금융 기관별 무역금융 추진계획 (각 2분)	수은, 신보, 기보
	(05')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부 제조국장
	(05')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국표원 기술규제국장
	14'	토론		참석자
14:15~14:58 (43')	30'	업계 수출동향 공유		
	(30')	발표	콘텐츠 → 반도체 → 방산 → 원전 → 전력기자재 → e-모빌리티 (기업별 각 5분)	업계 대표
	13'	토론		참석자
14:58~15:00	02'	마무리 발언		산업부 장관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무역협회 윤진식 회장님,
삼성전자 박용인 사장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사장님,
LS전선 구본규 사장님,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님,
디앤에이모터스 이상운 대표님, 갤럭시코퍼레이션 최용호 대표님,
두산에너지 김종두 부사장님,
지난주 취임 후 처음 참석해주신 무역보험공사 장영진 사장님,
코트라 유정열 사장님을 포함한
수출 지원기관 및 관계부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수출 원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근 수출입 평가 및 전망 】

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위기, 주요국의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우리 수출은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올해 2월까지 합산 수출은 두 자릿수(+11.2%) 증가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도 작년 대규모 적자 흐름을 끊고
흑자를 기록하며 200억불 이상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1~2월 합산 무역수지(억불) : ⁽²²⁾ △45 → ⁽²³⁾ △181 → ⁽²⁴⁾ +47 (전년比 +228억불 개선)

3월에도 주력품목과 주요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가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 1~2월 60% 이상 증가한 반도체 수출이
IT 전방산업 수요 회복과 AI 성장에 따른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품목의 수요 확대가 복합 작용하며
3월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미 수출도 올해 1~2월에 이어 3월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 수출도 1월에 이어서
3월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는 올해 3월까지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경우 작년 6월 이후 총 250억불 이상 누적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 7천억불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서
지난달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3대 애로인
금융·마케팅·인증 분야 해소를 위해
오늘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4월부터는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협업하여
해외수출 마케팅 분야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수출 7천억불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수준인 255조원 규모로 집중 투입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수출 현장에서 무역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 주력업종에 136조원,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26조원, 한류 확대에 따른 농·수산물 등 유망소비재에 18조원, K-콘텐츠에 2조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개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보험을 도입하고, 수출유발효과가 큰 해외현지법인의 시장개척 활동에 대해서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90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1~3차 협력사까지 제작자금을 촘촘히 지원하는 한편, 단체보험 확대,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 】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新시장, 유망품목 중심으로 상호인정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국내에도 시험장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기술장벽(TBT)이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해외 TBT 1% 증가시 수출기업 수는 최대 0.22% 감소(한국은행)

우선, 해외기술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 100대 수출기업 50%, 중소·중견기업 25%가 기술규제정보 미확인을 애로사항으로 제기

아울러,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애로를 접수, 원스톱 해소하고,
매월 지역순회 설명회도 개최하는 한편,

급증하는 기술규제에 대응하고 기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제정도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 】

금년도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품목 이외에도
새로운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시장은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동남아·인도 등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등 다른 국가보다 한발 앞서 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소형 e-모빌리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필리핀·인니·베트남 등 전략 국가를 중심으로
ODA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배달·교통 등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세안 e-모빌리티 전시회와
해외상담회 개최를 지원하고,
e-모빌리티 업계의 제작자금에 대한 대출보증과
수출보험을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다음주면 올해도 벌써 2분기에 접어들습니다.

수출 보릿고개로 여겨지던 1~2월에 거둔 의미 있는 성과를 넘어서 2분기에도 확고한 수출 우상향 기조를 다질 적기입니다.

하지만 수시로 세계 각 국의 수출통제, 홍해 물류사태 등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를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 회의 직후 반도체, 이차전지 등

8대 산업 공급망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인 소비·투자·수출 중

수출이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7천억불 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올해도 수출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